

광주FC “개막전 주인공은 나야 나”...돌풍 이어간다



링크드 출전 FC서울에 2:0 승리...예매 2분30초 만에 매진
전반 20분 이희균 선제골·가브리엘 ‘췌기포’로 데뷔골 기록

링크드가 주연? ‘광주FC’가 2024시즌 K리그1 첫 매진 경기의 빛나는 주인공이 됐다.

광주FC가 지난 2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개막전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전반 20분 ‘부주장’ 이희균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경기 종료 직전에는 새 외국인 선수 가브리엘이 K리그 데뷔골을 장식하면서 ‘승점 3’을 합작했다.

무실점으로 시즌 첫 승을 만든 광주. 링크드를 앞세운 서울에 쓸려있던 스포트라이트를 광주로 돌린 시련한 승리였다.

이번 개막전은 지난 시즌 장외의 설전을 벌였던 광주와 서울의 만남이자, 지역가로 통하는 이정호 감독과 포항을 떠나 서울에 자리한 김기동 감독의 시즌 첫 대결이 되면서 리그 일정 발표와 함께 눈길을 끈 대진이었다.

여기에 프리미어리그 출신의 링크드가 서울에 가세하면서 1라운드 최고의 화제 경기가 됐다.

예매 시작 2분 30초 만에 입장권이 동나는 등 이날 광주축구전용구장에는 7805명이 입장해 매진 사례를 이뤘다.

축구팬들의 바람과 달리 김기동 감독은 ‘링크드 없는 개막전’을 구상했다.

링크드를 투입하지 않고 원정경기에서 승점 3점을 챙긴 뒤, 10일 인천과의 홈 개막전에서 ‘슈퍼스타’를 등장시키는 게 서울이 준비한 최상의 시나리오

였다.

하지만 “이름값이 아니라 팀으로 싸운다”며 원팀을 이야기한 이정호 감독이 김기동 감독의 ‘기분 좋은 상상’을 꺾었다.

광주의 승리를 부른 선수는 ‘루키’ 안혁주, ‘부주장’ 이희균, ‘새 얼굴’ 가브리엘이었다.

이정호 감독은 이날 고려대 재학 중에 풀업을 받은 19살 안혁주를 선발 라인업에 넣었다. TV에서 보던 스타들을 보면서 처음에 긴장도 했지만 안혁주는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자 ‘무서운 신인’으로 돌변했다.

왼쪽 날개로 나선 안혁주는 빠른 움직임으로 초반 공격을 이끌었다. 안혁주는 프로 데뷔 6분 만에 화려한 슈팅까지 선보였다.

“너무 잘 맞아서 오히려 골이 안 됐다. 슈팅 장면만 빼고 데뷔전 경기를 계속 돌려볼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매서운 슈팅이었지만 서울 골키퍼 최철원에 첫골이 막혔다.

특점에는 실패했지만 안혁주 초반 분위기를 끌어올린 광주는 전반 20분 이희균과 이희균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시즌 첫 골을 장식했다.

중원에서부터 좋은 패스로 빌드업을 하며 서울 진영까지 진입한 광주. 상대 수비진에 둘러싸인 이희균이 이희균을 받고 힐패스를 했다. 그리고 이희균은 망설임 없이 오른발 슈팅으로 골대를 갈랐다.

1-0의 아슬아슬한 리드가 이어지던 후반 추가 시간에는 가브리엘이 새로운 스타 탄생을 알렸다.



광주FC의 이희균(왼쪽)이 지난 2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K리그1 2024 개막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이날 선발 출장하면 K리그 데뷔전을 치른 가브리엘은 놀라운 힘으로 상대를 막고, 빠른 스피드로 광주 공격 기회를 만들었다.

정호연이 “같이 연습할 때도 선수들이 옆에 잘 안 붙는다. 힘에서 안 되고 빠르다”고 웃을 정도로 차원이 다른 힘과 스피드로 K리그 데뷔와 함께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브리엘. 중요한 순간에 결정

력까지 보여줬다.

후반 51분 전개된 광주의 코너킥 상황에서 박태준이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렸다. 문전 경합 과정에서 상대 머리 맞은 공이 골대 오른쪽에 있던 가브리엘 앞으로 향했다. 눈스톱 슈팅을 선보인 그는 이내 골 세리머니를 하면서 강렬한 데뷔전을 치렀다. “감독님이 자신 있게 때리라고 하셨다. 감독님 덕

분이다”며 자신감을 심어준 이정호 감독의 공을 이야기한 선제골 주인공 이희균. “광주는 팀으로 하는 팀이다. 다 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만든 승리”라며 기뻐한 ‘주장’ 안영규.

광주가 강팀인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준 환상적인 개막전 승리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캡틴’ 손흥민, 40m 폭풍 드리블로 리그 13호골 폭발

토트넘 3:1 역전승 견인

‘캡틴’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약 두 달 만에 골 맛을 보며 소속팀 토트넘의 승리에 힘을 보탤다.

손흥민은 3일 열린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2023-2024 EPL 27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로 출전, 팀이 2-1로 앞선 후반 43분 득점포를 가동하며 승리에 췌기를 박았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13호 골이다.

손흥민은 올해 1월 1일 새벽 열린 본머스와의 20라운드에서 12호 골을 터뜨린 뒤 약 두 달 만에 토트넘에서 골 소식을 전했다.

본머스전 이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출전을 위해 3경기를 비웠던 손흥민은 한국이 4강에서 탈락한 뒤 복귀한 지난달 11일 브라이턴과의 24라운드에선 후반 교체 출전에 도움을 작성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 울버햄프턴과의 25라운드엔 풀타임을 소화했으나 공격 포인트를 쌓지 못했던 그는 웰시와의 26라운드가 리그컵 일정으로 연기되면서 2주 만에 나선 경기에서 마침내 골을 추가했다. 13골은 이번 시즌 EPL 득점 순위에서 공동 6위에 해당하며, 선두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17골)과는 4골 차다.

리그에서의 도움 6개를 포함해 이번 시즌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는 19개로 늘어 이제 하나만 추가하면 20개를 돌파하게 된다.

히사롤리송이 무릎 부상으로 당분간 결장하게 되면서 토트넘은 이날 손흥민을 최전방에 세운 크리스털 팰리스를 상대했다. 티모 베르너, 제임스 매디슨, 데얀 쿨루세브스키가 뒤를 받쳤다.

0-0으로 맞선 후반 9분 손흥민의 ‘골대 불운’이



지난 3일 런던의 토트넘 핫스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과 팰리스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팀의 세 번째 골을 넣은 후 기뻐하고 있다.

있었다.

쿨루세브스키가 오른쪽 측면에서 보낸 낮은 크로스를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오른발로 때렸으나 골대 오른쪽 아랫부분을 맞힌 뒤 나오게 되었다.

후반 14분 토트넘은 에베레트에게 프리킥 선제골을 허용해 수세에 몰렸다.

하지만 후반 31분 오른쪽 측면에서 상대와 경합을 이겨낸 브레넌 존슨이 페널티 지역 안으로 들어가 보낸 낮은 크로스를 베르너가 달려들며 오른발로 마무리했다. 후반 35분엔 공격에 가담한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매디슨의 크로스를 골대 앞에서 머리로 받아 넣으며 토트넘이 전세를 뒤집었다.

그리고 후반 43분엔 손흥민이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존슨이 패스를 찢러 주자 손흥민이 골장 특유의 스피드를 펼쳤고, 약 36m를 내달린 뒤 페널티 아크에서 오른발로 췌기포를 터뜨렸다.

손흥민은 후반 45분 팬들의 박수를 받으며 데인 스칼릿으로 교체돼 다음 경기를 기약했다.

/연합뉴스

이미향, LPGA HSBC 챔피언십 ‘공동 3위’

고진영, 3연패 실패...공동 8위

‘함평 골프교 출신’ 이미향(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총상금 180만 달러)에서 공동 3위에 올랐다.

이미향은 3일 싱가포르의 센토사 골프클럽 탄종 코스(파72·6749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이글 하나와 버디 5개, 보기 2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 합계 9언더파 279타를 써낸 이미향은 브룩 헨더슨(캐나다), 하타오카 나사, 니시무라 유나(이상 일본)와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우승자 해나 그린(호주·13언더파 275타)과는 4타 차였다.

2014년 미즈노 클래식과 2017년 여자 스크롤랜드 오픈에서 LPGA 투어 통산 2승을 보유했던 이미향은 지난해 9월 크로저 퀸시티 챔피언십 공동 5위 이후 약 6개월 만에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시즌 한 차례 톱10을 기록한 이미향은 이번 시즌엔 3번째 출전 대회에서 첫 톱10에 진입했다. 그는 앞서 1월 드라이브는 챔피언십에선 공동 35위, 지난달 혼다 타이완에선 공동 20위에 오른 바 있다.

3라운드까지 공동 11위였던 이미향은 이날 1~3번 홀 연속 버디로 초반부터 신바람을 냈다.

4번 홀(파3)에서 보기를 했지만, 7번 홀(파3) 버디로 만회하며 전반 3타를 줄였다.

이후 파를 지켜 나가던 이미향은 16번 홀(파5)에서 두번에 성공한 뒤 이글 퍼트를 떨어뜨린 데 이어 17번 홀(파3)에선 중거리 버디 퍼트를 넣어 순위를 끌어 올렸다.

마지막 18번 홀(파4)에선 두 번째 샷이 그린 주변 범격에 빠진 여파로 보기를 적어내 아쉬움



을 남겼지만, 이번 대회에 출전한 한국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남겼다.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선 지난해와 2022년 고진영이 우승했고, 2021년 김효주, 2019년 박성현이 정상에 올라 최근 4차례 대회(2020년은 코로나19로 취소)에서 한국 선수가 트로피를 지켜왔으나 올해는 불발됐다.

2019년 메이저대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우승자인 그린리 셸리 부티에(프랑스·12언더파 276타)를 한 타 차로 따돌리고 LPGA 투어 통산 4번째 우승을 수확했다.

대회 3연패를 노린 고진영은 이날 한 타를 줄여 앨리스 코푸즈(미국), 패티 타와타나깃(태국) 등과 공동 8위(7언더파 281타)로 마쳤다.

3라운드까지 선두였던 후루에 아야카(일본)는 3타를 잃어 공동 8위에 그쳤다.

김세영과 최혜진은 공동 17위(5언더파 283타), 전인지와 유혜란은 공동 22위(3언더파 285타), 신지은은 공동 26위(1언더파 287타)에 올랐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유우제 개인전 <이상한 풍경>

일시 : 2024-02-23(금) ~ 2024-03-24(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년 광주상설공연(3월)

일시 : 2024-03-02(토) ~ 2024-03-31(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이상한 풍경

유우제 개인전

2024. 2. 23. (금) ~ 3. 24. (일)